

광주 풍암호수,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 청신호

부지 소유권 확보·국가도시공원법 개정 등 잇단 호재
수질 개선·시설 정비...1인당 공원면적 2배로 확대
21일 비전 선포식 예정...명품공원 조성 계획 등 발표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을 명품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근린공원은 총면적 280만㎡ 규모로, 도심 속에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역사·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광주의 대표 공원이다. 2023년 말 부지 소유권이 광주시로 이전돼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다.

지난 4일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인천·부산·대구 등 경쟁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

다. 광주시는 앞으로 나머지 요건인 공원 전담인력 확보와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풍암호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무등산국립공원·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가공원 보유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광주 브랜드 가치 상승, 도심 온도 저감, 생태환경 보전, 열돔 현상 완화, 공원 축제·박람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6.3㎡



에서 12.3㎡로 확대(2027년 기준)돼 생활환경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연다.

선포식에서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 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풍암호수는 1950년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이후, 중앙근린공원의 중심 수변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문화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질 악화(5급수)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종합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명품 풍암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주민협의체(서구 7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 등 참여)와 논의 과정을 거쳐 2023년 11월 광주시,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자 간 최종 합의를 이뤘다.

주요 합의 내용은 3급수로 상시 유지를 위한 호수 내부로 유입되는 오염된 우수와 수시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차단, 추가 수량 확보를 위해 지하수 재이용과 물순환 체계를 구축 등이다.

광주시와 사업시행자는 호수의 수질문제 개선과 더불어 호수 주변에는 산책로와 백사장, 전망대, 야외음악당 등이 새롭게 들어서 친수공간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될 장마원은 기존 부지보다 약 30% 정도 확장돼 약 2500평 이상 규모의 도심 숲치는 공간의 생태 휴식 공간으로 선보인다.

또 호수 내부에는 길이 130m, 높이 50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분수가 조성돼 감성 음악과 함께 야간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의 과정을 거쳐 2023년 11월 광주시,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자 간 최종 합의를 이뤘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개방과 산책로 대체 이용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일부 구간은 공사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우회 산책로를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풍암호수가 수질·시설·경관 모두에서 품격 있는 명품호수공원으로 거듭나 광주의 대표적 국가도시공원 1호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빛의 임명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빛의 임명장' 큐브가 완성된 뒤 인사하고 있다.

“KTX 호남선 증편·수송력 개선해야”

이재호 의원, 좌석 수 많은 신형 열차 투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7일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KTX 호남선 증편과 수송력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매일 서울행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말 표는 2주 전에도 매진이 되고 평일 표도 시간을 맞춰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증편과 함께 수송력 개선을 지적했다.

KTX 호남선 이용객은 지난 2022년 일일 9800명, 연간 360만명에서 지난해는 일일 1만2000명, 연간 432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운행 편수는 평일 광주송정역 기준 46회에 그치고 있다.

호남선 증편이 어려운 이유는 선로용량 부족 문제다.

코레일 측은 오는 2028년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이 완료돼야 선로 용량이 확대돼 열차 증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오송 선로 용량은 하루 190회선으로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합류해 선로 포화 상태라 새로운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레일이 이용률과 운행 배분 등 회사 이익만을 우선하고 호남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증편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당분간 좌석 수가 많은 신형 열차를 투입해서 좌석 수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호남선에는 주로 10량 편성의 363석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고속열차인 EMU-320(KTX-청룡)은 16량 편성으로 515석에 달한다. 또 경부선에 운행되는 KTX-1은 20량 편성으로 935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시의회, 예결위 재구성...여전히 과제는 남아

원포인트 임시회서 민주당 '8인 체제'로 새롭게 구성
의원 10명 윤리심판 여부 촉각...가부동수 등 우려도

광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밀실 투표 논란'을 겪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통 끝에 새롭게 구성했다.

하지만 예결위 구성 과정의 '감투 싸움'으로 민주당 시의원 상당수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데다 짝수 체제에 따른 표결 가부동수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시의회의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의회 마지막(47) 예결위 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새롭게 구성된 예결위는 조석호 의원이 위원장, 이명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심철의·홍기월·안평환·서용규·

박필순·박희을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결정됐다.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을 점용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앞서 지난 11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47예결 특위를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1명 줄이고 의장 몫의 추천(1명)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예산·결산안을 심사·조정하는 예결특위는 당초 지난달 18일 9인 체제로 출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실 찍지 투표' 논란 등이 일었고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위원장, 국민의힘 부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는 광주시의회 개원 30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로, 재직 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비민주당 인사가 핵심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예초에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으로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합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후 민주당 특위의 진상 조사에서 '합의 추대'가 아닌 '경선'(쪼끄 투표)으로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의원이 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광주시당은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강수훈·김나운·박미정·서임석·안평환·이귀순·정다운·정무장·채은지 의원 등 10명에 대해 해당 행위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정식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그러자 기존 9명의 예결위원들은 '전원 사퇴'했고, 추가 진통 끝에 이날 새롭게 예결위원이 선임됐다.

우여곡절 끝에 새판짜기에는 성공했으나 예결특위 파동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고, 8인 특위 구성에 따른 표결 가부동수 우려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윤리심판은 현재 1차 회의가 끝난 상태고 의원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정점으로 표결이 필요할 경우, 찬성과 반대 4대 4로 가부동수(동률)가 나오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광주시의회 재직 의원은 모두 23명으로, 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국민의힘, 1명은 무소속이다.

정승기 기자 sky@

전남도, 우주·항공·드론산업 핵심 인프라 점검

강위원 부지사, 고흥 나로우주센터 등 방문해 발전방안 모색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1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고흥항공센터, 고흥드론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전남 우주·항공·드론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점검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강 부지사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통제동과 발사대, 연소시험장 등을 둘러봤다. 나로우주센터는 2009년 준공 이후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비롯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

공까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1조6000억원을 들여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고흥 일원을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의 심장부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민간발사장, 기술사업화센터,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갖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2우주센터 유치와 재사용발사체 발사장 구축, 자·산·학·연 연합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발사체 개발부터 상용화, 인제 양성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고흥항공센터에서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를 살폈다. 고흥항공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공역과 활주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국가 유일의 종합 비행시험 인프라다. 현재 국토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삼아 남해안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버티포트·MRO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미래 항공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로 확대할 방침

이다.

고흥드론센터에서는 드론 제작·활용 기업의 입주 현황과 실증 지원시설을 점검했다. 고흥드론센터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중심으로 섬·관광지 드론배송,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강위원 부지사는 “우주·항공산업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핵심 분야”라며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미래항공모빌리티, 드론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2035년 세계 우주경제 5대 강국 진입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도,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실증 지원

25일까지 모집...3개 과제 선정 각 최대 8250만원

전남도는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미래성장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및 실증 지원사업' 수행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담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유망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이후 시장 진입을 앞둔 시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품질 개선, 기술·제품 인증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총 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8250만원(실증 8000만원·인증 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설립 6개월 이상 7년 이내 기업으로, 전남에 본사나 연구소를 보유하고, 중앙부처나 전남도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서 '성공' 평가를 받은 기업이다.

신청은 단독 수행뿐 아니라 지역 인력의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김치축제 서울서 팝업스토어

20일까지 '리얼월드 성수'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리얼월드 성수'에서 제32회 광주김치축제 사전 홍보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문화관광축제 과제 지원 사업'으로, 광주김치축제, 금산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대구치맥축제 등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국 4개 대표 지

역축제가 참여한다.

‘구석구석 마트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의 행방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리는 팝업스토어는 김치명인의 이야기와 실제 소품을 활용한 미션형 게임콘텐츠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샷 촬영, 임무보고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으며 축제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할인권 등이 제공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